

허베스틀은 누구인가?

기독교계의 외국 저자 중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들이 있다. 존 스톱트, 토저 등과 같은 이름이 그들이다. 이들은 복음적이며 보수적이고, 경건한 신앙인으로 목사이며 신학자로서 우리에게 고전적인 저자로 남아있다. 글의 문체와 영성의 분위기를 좀 더 대중화하면 역시 익숙한 외국 저자들의 목록이 생성된다. 찰스 스윈돌, 유진 피터슨, 리처드 포스터 등과 같은 이름이 또한 그들이다.

이들은 한국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기독교계 인기 저술가로 아마도 마니아 그룹이나 팔로어도 대단해 보인다. 고정독자층을 형성한 저자들이다. 그들의 책은 한국 독자들에게 신화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거의 거부감 없이 읽힌다. 여기에 폴 허베스틀(T. Horvostol)을 첨가하면 어떤 반응이 올까? 그 이름은 우리에게 생경하고 생소하다. 그런데 전혀 낯설지가 않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위에 소개해 기증 저술가들과 비교해서 문체와 분위기가 참 비슷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책 곳곳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저술가들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작용한다. 허베스틀은 스외겔란드에서 선교사로 헌신했고, 목사로 섬겼으며 그리하여 목회 현장에 서 벌어지는 신앙인들의 위선적 페르소나에 대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뇌하였다.

현대 신앙인의 페르소나에 말 걸다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비판하려 하지 않는다. 그 비판이 정말 할 때에도 비판하려면 왓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깔려져서 용서하지 못하므로? 자책감이 먼저 들 때가 잦다. 이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은 주로 이런 성경 구절이다. “비판을 받지 아 니하러거든 비판하지 말라”(마 7:1).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나”(마 7:3). 그런데 이런 심적 장애물을 부심비리고 비판을 감행할 때 정당화할 수 있는 이름이 있다. 비판을 정당화하는 최상의 조 건은 바로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적이다! 라는 딱지가 붙으면 어떤 비판이라도 할 수 있는 면죄부, 용기를 준다. 왜 그렇까. 아마도 신약 성경에 100회 이상 등장하는 용어이기도 하며, 중 중 특정한 색깔론으로 대변되기 때문이다. “...너희 의가 서기 판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 리라”(마 3:7).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



불편한 진실, 내 안의 바리새인

틀 허베스틀 저 | 이경미 역 | 옮김 | 2012.1월 | 홍성사 | 때론

① 추태화 (인양대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이 책에서 허베스틀 목사는 설교가라기 보다 치유자이다. 그의 저술은 위선과 착각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치며 치유한다. 전통, 율타미, 규범으로 바뀐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구원이 임한다. 모든 “바리새적” 가면을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계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적응이 필요하다. 이 시기 부 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강한 정서적 지 지가 필요하다. 중년기로의 전이는 강한 정서적 변화를 동반하고 변화가 불안정할 때는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또 부부가 상대방의 지지가 부족할 때 고립감이 나 거릴감을 강하게 받을 수도 있기에 부부간의 정서적 지지는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 시기에는 가 시와 집안일에 대한 규칙들을 새로이 정립하는 것이 요 구되는데 이럴 때 부부간의 많은 대화와 소통은 필수적 이고 이를 통해 부부관계가 성장할 수 있다.

노년기 가족

본인과 배우자의 노령화에 적응하고 배우자의 죽음에 적응하는 시기로서 자녀의 독립과 의존을 균형 있게 조 절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특히, 합리적인 경제적인 대책의 마련,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유지, 적절한 거주환경의 선택, 부부관계의 개선, 죽음의 수용, 가족 친지와의 유 대감 등을 유지하는 것을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으 로 가족학자들은 보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처럼 남 성의 은퇴연령이 빠른 사회에서는 남성이 은퇴 이후 자 원봉사 등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생활에 부분 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자아정체감에도 좋고 성 공적인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맺는 말

가족주기 이론이 사회과학에 기초를 두지만, 부부가 현 재와 미래에 경험하는 인생과 가족의 부정적인 사건들 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가족 구성 원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 이론이 잘 사용될 때 가정사회의 전문성이 더 깊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구결과는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어서 부모로부터 분리 를 시도하고 독립적인 개체로 크고 싶어하는 시기임에 도 아버지가 자녀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보여주면서 이 시기에 부모 자녀 관계가 힘들더라 도 아버지가 지속해서 자녀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함 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에는 부부가 자녀의 교육에 더 집중하면서 부부관계를 가꾸고 기르는데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부부의 자녀 교육에의 집중은 당장은 좋 아 보이지만 나중에 자녀가 떠나고 부부가 나이 들어 살아가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관계 중 심적으로 살아온 남성이 일 중심적으로 살아온 남성에 비해 노년기에 더 좋은 부부관계를 갖고 성공적인 노화 를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를 비추어 보았을 때 자녀의 교 육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부부가 지속해서 부부만의 시 간을 갖고 대화하고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 요하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가족교육은 청소년 자녀에 대한 이해와 이들과의 소통뿐 아니라 이 시기에 부부관 계를 든든하게 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 독립기

자녀가 20세가 넘으면서 사회로 진출하고 독립적인 개 체로 되는 시기다. 자녀의 대학입학 및 졸업, 취업, 그 리고 결혼을 하는 시기로 이들의 인생에서 큰 도전과 변화를 겪는다. 또한, 부모님의 짐을 서서히 떠나게 된 다. 부모는 중장년기를 지나면서 사회생활에서 공헌이 극대화되고 책임이 크게 부과되는 시기이며 이와 함께 서서히 노화로 말미암은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변화 등을 경험하게 된다.

가족발달과정으로는 부부중심의 거주환경 설정, 건강 대책의 마련, 장래를 위한 경제적 계획, 부부간 상호보 충적 역할 발전, 부부간 상호작용 증대, 지역사회 활동 참여 및 인생관 재확립 등이 있다. 무엇보다 이 시기는 자녀가 서서히 떠나면서 부모가 이전과는 다른 부부관



김성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브랜디워인 캠퍼스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Brandywine)의 인간발달 및 가족학(Bu me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가족공동체를 회복하고 새롭게 세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가족학 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고, 부부관계, 남성과 아버지, 다문화 가족, 질적연구방법론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가 의논하기를”(마 12:2),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눅 11:43).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 하여 등장한 바리새인의 모습은 부정적이다. 율법 준수를 철저하게 주장, 실행하려는 이른바 보수풍류이다. 그런데 그 외곽 뒤에는 손 이매위가 다른 것처럼 상황에 따라 조삼모사 하는 카멜레온, 악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한 이중인격자, 어떤 형태로든 자기편이 아니다 싶은 면 폭력도 불사하는 세디스트가 들어있다.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바리새인이 모든 비판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저자는 여기에 만족을 건다. 바리새인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바리새인은 이제 그 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를 지칭하는 하나의 신화가 되어버렸지만, 그들의 역사적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계몽한다. (저자는 책 곳곳에서, 부록에서 바리새파의 역사에 대해 실증적으로 언급한다. 무턱대고 신임권에 쫓겨 바리새파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안목으로 관찰하고 짐근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바리새인의 이미지를 잘못 기공하면 나 자신을 살피는 데 실패할 뿐더러, 이와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을 간파할 가능성이 크다”(p.29). “박수 받을 만한 바리새인의 특징”(p.34)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인의 바리새인”

저자가 지목하는 것은 바리새인보다 더 부수는 존재, 즉 현대 신앙인들의 욕망이다. 바리새인의 실수보다 더 치명적인 것인 “바리새인” 뒤에 숨어서, “바리새인”을 들먹이며 “바리새인”보다 더 교활한 폼수를 행하는 현대 기독교인의 욕망이다. 저자는 이 부분을 통렬하게 폭로한다. “바리새인은 바로 나!”(p.44). 그렇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바리새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깨달음과 회개에 돌입해야 한다. 이보다 더 통렬한 자기 고발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대목에서 허베스틀 무시는 <우리 인의 히틀러> (Hitler in us)라는 책을 기억한다. 이 책은 나치 독일을 지배하던 히틀러를 비판한 수많은 이론 앞에서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했다. “히틀러만을 죄인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에 도사리고 있는 히틀러적 성향이 나치주의를 불러왔다”는 논지였다. 저자는 이 책을 간접 인용하면서 현대 신앙인들의 위상을 “우리 인의 바리새인”이라고 진단한다. 허베스틀의 본심은 여기에 있어 보인다.

우리 인의 싼 뿌리 “자기 의”

장점과 선의를 가진 바리새파가 왜 부정과 치욕의 대명사로 변질하였을까? 그것은 “그들이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서가 아니라, 진리와 가까웠기 때문이다”(p.45). “주의 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요 2:17, 시 69:9).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신의다. 그 심령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왜 그 열심이 실수하고, 좌초하고, 때로는 범죄함으로 떨어지는가? 여기에 인간의 죄와 탐욕이 가세하기 때문이다. 자기의(自己義, Self-Righteousness) 때문이다. 이 책의 원제가 <Extreme Righteousness>인 것을 생각하면 저자가 무엇을 폭로하고, 치유하려 했는지 예견하게 된다.

“상경은 늘 바리새인을 삼키기면서 종교가 얼마든지 모조품이 될 수 있고 앞으로 그럴 것이 라고 증명한다. 예수님 시대부터 교묘히 왜곡된 바리새주의는 교회로 꾸준히 침투했다. 전통, 본리주의, 자기의 의, 꾸미진 쇼 등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징후다”(p.56). 저자는 여러 부분

으로 현대 신앙인들의 신앙 양태를 분석하고 지적해 준다. 허베스틀은 바리새인들이 위신의 대명사처럼 변질된 것은 종교적 전통과 습관에서 구원을 찾았던 데에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현대 신앙인들은 이런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오늘날의 복음주의의 교회는 놀랄 정도로 닮았다. 우리는 이 종교적인 무리를 새롭게 조명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한 최선의 진리를 배워야 한다”(p.45).



“우리 인의 바리새인”

저자는 다양한 목회 경험을 통해, 신앙인들이 어떻게 “바리새적” 오류에 빠지게 되는지 분석, 대안을 제시해 준다. 책의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성경해석, 말씀 묵상, 생활의 적용, 동등 신앙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영적 차이를 가려준다. 저자의 글쓰기는 삼중(三重)으로 짜여있다. 신앙생활에서 발견되는 오류를 성경에서,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찾아내어, 이를 현대 신앙인의 구체적인 사례로 연결한다. 풍요로운 사례는 독자들이 하여금 자유로 안배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진단은 실로 안일과 축복의 복음을 요구하는 우리 현대 신앙인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기도란 가짜 약과 같아... 때로 현실 도피, 책임 회피용으로 이용된다... 사역에 투신하는 신앙 좋은 사람들도 기도를 통한시한다”(p.142). “영적 무감각을 감추려면 교회 활동을 왕성히 하면 된다. 비극적이게도 기독교인은 충만함이 아닌 공허감으로 바쁘게 사역한다”(p.268). “교회는 이따금씩 브로드웨이를 능가하는 실력을 가진 배우가 된다”(p.270).

이 책에서 허베스틀 무시는 설교가라기 보다 치유자이다. 그의 저술은 위선과 착각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치며 치유한다. 전통, 율법, 규범으로 바뀐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구원이 임한다. 모든 “바리새적” 가면을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진짜 기독교처럼 포장된 종교적인 대인은 언제나 존재한다”(p.284). 이 책은 풍부한 임상 사례들로 우리 자신들이 이명의 영적 질환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참으로 귀한 안내서이다.



추태화 인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해학, 기독교문화, 철학, 사회학(M.A.)을, 그리고 아우구스투르 대학교에서 독일 문해학과 신학을 공부했다(Dr.P.H.),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상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 시회가 건강하고 학적 성장력을 통해 많은 풍요로워지기 를 꿈꾸는 기독교 문화운동가이다.